

인공지능차 워크숍과 기후변화

‘08. 3. 5~7일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모티쇼에서 ISO, IEC 및 ITU(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, 국제전기통신연합)의 공동주최로 인공지능차 워크숍 (Fully Networked Car Workshop)이 개최되었다. 본 워크숍은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(ICT,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)의 적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표준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, 기후변화를 특별주제로 다루었다.

본 워크숍은 이해당사자간 대화 차년을 구축하고,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ITU사무총장인 Dr. Hamadoun I. Touré는 워크숍 개최식에서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도로 위 자동차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절대적 기술이며, ISO, IEC 및 ITU는 시로 협력하여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등 표준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논평 하였다.

ISO사무총장인 Mr. Alan Bryden은 오프닝세션 연설에서 “동행사는 표준과 혁신의 중요성 및 운송수



김 경 아
에너지물류표준과 부문위원
02-509-7273
rcsakin@mke.go.kr

단의 성능, 안전 및 기능성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였다. 또한 ISO, IEC 그리고 ITU간 세계적인 전문기술과 민변사례를 어떻게 국제표준화하고 통합할지를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다.” 라고 언급하였다.

※최근 ISO의 연계한 기후변화 관련 주요회의

- UNF 후변회협약(07.7월, 빌라): 온실가스배출량의 계산 및 검증에 대한 ISO 14064 및 ISO 14066
- 세계도로안전 UN포럼(07.4월, 스위스): ISO, 도로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착수 결정
- 다노스 경제포럼(08.1월, 스위스): 공동혁신의 힘

출처 | ISO 홈페이지
| 기술표준 2008, 5